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내정보실

글 · 사진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우리 실은요...>

중심 혹은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꼭 있어야만 하는 분야가 있다.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꼭 있어야만 하는 분야.
 누군가의 묵묵한 노력과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일궈지는 그런 분야를 위해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혹은 밤새도록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뜨거운 여름을 더욱 열정적으로 불사르고 있는 이들.
 오늘의 주인공 '국내정보실' 정예 멤버들이, 바로 그들이다.



같은 출발선에 선 자전거와 KTX.

비교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는 과학기술 R&D에 있어서 활용도 높은 고급 지식정보를 확보했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차이로 비유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R&D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선진 외국에서 발표된 정보들을 활용했고, 정보의 수집과 DB화, 서비스도 해외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연구원 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학기술정보만을 특화시켜 연구하는 '국내정보실'이 탄생했다.

국제적인 스타 과학자가 된 서울대학교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학술결과물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제 국내의 과학기술 정보만을 따로 연구하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는 국가적인 당위성이 서였다. 국내정보실의 업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정보자원을 조사, 수집, 관리하고 이를 DB로 구축해 국내 연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과학기술정보의 숨은 실력자들...

국내정보실의 가장 특징적인 사업은 '과학기술 학회정보화 지원사업'이다. 이것은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의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을 목표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현재 254개의 학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54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사업을 통해 축적됐다. 국내 과학기술정보의 주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학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안정적 확보와 질을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KISTI-ACOMS)을 통해 학회 회원들의 논문투고, 심사, 출판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학술정보는 이용자들이 웹상에서 즉시 획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회 정보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 꾀하고 있다.

국내정보실은 또 지난 4월, 374개 과학기술 학회의 학술정보를 일일이 개별 학회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학술정보종합관리시스템(ACMS) 서비스를 시작해, 수요자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민간 포털사이트인 엠파스, 야후, 파란과 제휴하여 우리 연구소가 구축한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점을 확대함으로써 비약적인 이용확대와 사업홍보를 이뤄나가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의 정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산한 고급정보를 우리가 배우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내정보의 활용이 한발 더 진보된 새로운 연구결과를 낳고 그 지식정보가 또 다른 연구결과를 낳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국내정보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강무영 실장

크키, 시원시원한 인상만큼이나 잔정이 많은 분이다. 걸으며 드러나지 않게 꼼꼼히 실원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 살살 만져주시는 맘 좋은 분. 그러나 마음씀씀이만큼이나 일에 관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꼼꼼한 탓에, 실원들이 도저히 나태해질 틈이 없도록 만든다.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전국 방방곡곡의 산에 신출귀몰하는 '산사나이' 이기도 한 그는, 현재 시스템개발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과학기술 학술정보 자원개발과 시스템 개발 보급을 총지휘하고 있다.

약간 느린 행동과 어눌한 말투가 오히려 매력인 남자.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여간 두루두루 무리 없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 좋아서인지, 254개나 되는 학회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과학기술 학회정보화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도 큰소리 한번 만들지 않는 '괴력'을 과시한다. 최근 선임연구원으로 승진한데다, 이산가족 생활을 청산하고 부인과 아들 꿀몽이를 매일 볼 수 있게 돼서 연일 싱글병글이다. 앞으로도 그의 인생에 올해 같은 좋은 일들이 자주자주 생겨나기를 바란다.



박재원

<우리 실 사람들 은요...>

뜨거운 여름 햇살 속에 만난 국내정보실 사람들에게, 그러나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같은 실에 있다보니 비슷한 분위기를 갖게 된 건지, 그런 사람들만 골라 뽑은 건지.

하여간 한 명 한 명 모두 부드럽고 온화하다.

그러나 한 마디만 말을 걸어보면 누구든 알 수 있다.

국내정보실 사람들이 얼마나 '뚝' 소리 나게 일을 하는지, 자신의 일에 얼마나 높은 자긍심을

품고 사는지를 말이다.

국내 유일의 "국내 과학기술정보 전문 연구팀"의 열혈 멤버들. 그들을 만나보자.



최명석

이번 취재가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실에 합류했다. KAIST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우리 연구원에 입사했는데, 순박한 인상에 순진한 웃음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벌써부터 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업무 익히는 속도도 빠르데다가 축구, 농구 등 공으로 하는 운동은 뭐든 잘하는 스포츠맨이며, 빨래, 청소, 아기 보기 등등 집안일도 척척박사라고 소문이 나서 주변 남성들을 은근히 기죽이고 있는 중이다.

즈겹게 살자를 삶의 모토로, 오늘도 내일도 Happy를 추구하며 산다. 일하랴, 박사과정 밟으랴, 엄마노릇 하랴 나름대로 꽤나 바쁘게 산다고 자부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음악 듣고, 콘서트도 쫓아다니며 각박하지 않게 살려고 애쓴다. 얼굴, 마음, 물건, 집 할 것 없이 뭐든 예쁜 존재를 바라보고 아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그런 만큼 스스로도 최소한 마음만은 아름답게 살리라 마음먹고 지낸다. 현재 국내 정보자원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최선희



김병규

한마디로 '바른생활맨'이다. 무척이나 깊은 신앙심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음으로 멋지게 해내는 사람. 가끔 지칠 법도 한데, 계속해서 재충전되는 충전지처럼 항상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산다. 그래서인지 좀 미안하다 싶을 만큼 많은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만 락 발라드가 아니면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그. 현재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운영을 맡고 있다.

웃을 땀, 하회탈 같다. 하회탈 이미지처럼 실제로도 소탈하고 맘 좋은 그. 그러나 일욕심이 너무 많아 허구한 날 밤을 새우기 일쑤인 사람이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부스스한 얼굴로 출근하는 그를 보면 아무래도 빨리 장가를 가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표준화기술지원실에서 파견 나온 지 6달밖에 안됐는데도, 원래부터 우리실에 있던 사람인 것처럼 편하고 부담 없는 그는, 현재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ACOMS) 시스템 개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정희석



김용렬

국내정보실에서 출장을 가장 많이 다닌다. 오늘은 서울, 내일은 대구, 모레는 부산 등등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있는 정보생산자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며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DB화 하느라 마치 홍길동처럼 바쁜 분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참 따뜻한 분. 현재 국내 정보자원 개발 및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굳게 다문 입, 떡 벌어진 어깨, 굳은 심지가 활활 불타는 눈. 첫눈에 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거기다 다부진 체격에 어울리게 못하는 운동도 없고, 7년째 한 여자를 향하고 있는 지고지순한 사랑 역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건강함과 더불어 때 묻지 않은 순진함과 성실함으로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이 '맘사위' 감으로 점찍을 법한 그는, 현재 국내 학회정보화 사업 및 학회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강순종



임태균

약간의 장난기와 재치만점의 화술로 조용한 국내정보실에 상큼한 탄산수같은 시원함을 주는 매력남이다. 커피를 잘 끓이는 것으로 봐선 요리도 잘 할 것 같고, 맡은 일은 언제나 빠르고 깔끔하게 해치우고, 거기다 노후 보장 확실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으니 그만하면 갖출 만큼 갖춘 셈. 멋진 여성이 등장할 때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보자원 수집 및 학회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KISTI**

글 _ 최선희 · 국내정보실 · shchoi@kisti.re.kr